

海女出稼와 그 民謠

김 영 돈*

1

제주도해녀의 行動半徑은 제주도 연안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東北아시아 네 나라 漁場까지 널따랗게 뻗었었다. 해녀들로서는 그들의 漁場이 또 하나의 밭인 셈인데, 실로 그들의 밭은 東北아시아 일대까지 질펀하게 깔렸던 셈이다. 해녀들에게는 농사를 짓는 물의 밭만이 밭이 아니라, 漁場 또한 일터로서의 또 하나의 밭이니, 제주도해녀의 밭은 자그만 섬 안에 국한되질 않고 韓半島 沿海와 술한 섬들, 日本 곳곳의 바다, 中國과 러시아의 바다에까지 광활하게 뻗어나갔던 터이다.

제주도해녀들은 19세기말부터 釜山, 東萊, 蔚山 등지에 出稼하기 시작해서 韓半島 各沿海에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는가 하면, 日本 沿海 각처와 中國(靑島·大連) 및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까지 진출했었다. 어찌하여 제주도해녀들은 제주도 연안에서만 물질하지 않고 異鄉他國에까지 나가게 되었을까. 그곳에도 술한 海產物이 깔렸지마는, 이를 채취할 해녀들이 없기 때문이다.

* 제주대학교 교수

甲午更張(1894)을 전후하여 경상남도 일대로부터 물질나가기 시작한 제주도 해녀들은 우뭇가사리·미역·銀杏草·櫻草 등 각종 해조류와 소라·전복 등 貝類를 채취하면서 소득을 올렸다. 우뭇가사리 등 海藻類의 利用度가 붙어 나면서 釜山 등지를 근거지로 한 海藻商들이 점차 많아져 갔고 客主들이 부족 늘어났다. 이들은 섬 바깥으로 出稼할 해녀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해마다 年初가 되면 제주도를 드나들면서 영세한 해녀들에게 前渡金을 내준다든가 食料品·生活必需品 등을 빌려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면서 해녀들을 데려가곤 하였다.

제주도해녀들이 海外로 出稼할 때에는 돛배와 發動船·汽船 등을 이용하였다. 韓半島를 드나들 때에는 흔히 돛배를 탔었는데, 해녀들은 억세게 櫓를 저으면서 〈海女노래〉를 불렀었다. (이 글에서 인용되는 〈海女노래〉의 자료는 필자의 《濟州島民謠研究上》에서 간주했다.)

- | | |
|--------|-------|
| ① 한로산을 | 등에지곡 |
| 대천바당을 | 집을삼앙 |
| 부모동싱 | 이별홀적인 |
| 손수전인덜 | 아니젓이라 |
- (873)¹⁾

- | | |
|-----------|--------|
| 〈語釋〉 한라산을 | 등에 지고 |
| 대천바다를 | 집을 삼아 |
| 부모 동생 | 이별할 적엔 |
| 손수전인들 | 아니 젓으랴 |

- | | |
|--------|------|
| ② 요벤드레 | 그차진덜 |
| 요노야상괵 | 부산항에 |
| 녹보출이 | 떨어지랴 |
- (879)

- | | | |
|--------|-------|------|
| 〈語釋〉 요 | 〈벤드레〉 | 끊어진들 |
|--------|-------|------|

1) 拙著: 《濟州島民謠研究上》(一潮閣, 1965)에 수록된 자료의 번호. 이하 같다.

요 노야 상채 부산항에
로우프가 떨어지랴

③ 우리 팔계 험하고나
죽은낭을 집을삼곡
허계비그찌 실린네에
바당을 집을삼곡
우리팔계 험하고나

(898)

〈語釋〉 우리 팔자 험하구나
죽은 나무를 집을 삼고
허수아비같이 실린 노에
바다를 집을 삼고
우리 팔자 험하구나

①에서 노래되었듯이 漢拏山을 등지고 떠나는 出稼海女들은 푸른 바다를 집안으로 관념한다. 물마루 끝까지 펼쳐진 海原을 마당처럼, 집안처럼 여기면서 며칠씩 櫓를 짓고 韓半島 곳곳으로 나갔었다. 파도가 몹시 드높거나 바람이 거슬러 불 때에는 더욱 억세게 櫓를 저었다. ②에서처럼 〈벤드레〉가 끄기든 말든 아랑곳않고 온 힘을 다하여, 이른바 배의 〈발판〉을 짚으면서 櫓를 젓는다. 〈벤드레〉란 돛배나 낚시거루의 櫓를 저을 수 있도록 배 멩에와 노손을 묶어 놓은 밧줄. 해녀들만 櫓젓는 동작에 맞춰 〈海女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함께 탄 船主나 사공도 더불어 櫓저으면서 〈海女노래〉를 부르는데, ③은 그 세보자가 남성이다. 나무로 지은 배에 목숨을 걸었고 바다를 집안으로 삼는다는 점이 거듭 강조된다.

釜山 일대에 出稼하기 시작한 제주도 해녀들의 出稼地는 점차 멀리는 淸津에 이르기까지 東海岸 곳곳을 누비어 北上해 갔고, 多島海 등 전라남도 연안과 황해도 등 西海岸 일대 각연안에 다다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는 1937년도 《濟州島勢要覽》²⁾의 기록으로도 입증이 되는 터이다. (괄호 안은 筆者 註記)

2) 《濟州島勢要覽》, p.25, 濟州島, 1937.

4 玄谷 梁重海博士 華甲紀念論叢

本島 沿岸에 居住하는 婦女子는 거의 裸着에 의한 捕貝業에 能하여 約 40年前 부터 慶尙南道에 出漁하여 漸次 各道 沿岸부터 內地(日本)·浦鹽斯德(Vladivostock)·支那(中國) 등의 沿岸에도 出漁하기에 이르렀다. 그 人員 昭和 9年度(1934年度)에는 約 5千人 以上에 달하여 漁獲高 約 70萬圓, 島內沿岸에 作業하는 者는 5,300人이다. 그 漁獲高 27~8萬圓에 달하여 이를 合하면 漁獲高가 百萬圓에 가까와서 淸 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대단히 크다. 그리하여 이들 多數의 海女가 出稼함에 따라 한편 現地에서 勞力의 不足을 일으키고 오히려 濟州島 開發上 支障이 있음으로써 昭和 11年度末(1936年) 濟州島漁業組合을 設立하기에 이르러 顯著히 出稼를 制限하는 한편, 出稼地에서의 海女の 保護에 全力을 기울이고 있으며 出稼狀況을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 韓國內 出稼地別 人員		○ 日本 出稼地別 人員	
(1937年(昭和 12年) 3月末 現在)		(1937年(昭和 12年) 3月末 現在)	
全羅南道	408	對馬島	750
全羅北道	19	高 知	130
慶尙南道	1,650	鹿兒島	55
慶尙北道	473	東 京	215
忠清南道	110	長 崎	65
江 原 道	54	靜 岡	265
咸鏡南道	32	千 葉	51
咸鏡北道	5	愛 媛	10
黃 海 道	50	島 根	10
計	2,801	德 島	50
		計	1,601

平安北道를 제외하면 韓半島 各沿岸에 제주도해녀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고, 韓半島 및 日本에 出稼했던 제주도 해녀수는 도합 4,402명에 이르고 있다. 1939년에 펴낸 《濟州島勢一覽》에 따르면 1938년말 현재 제주도해녀의 出稼人員數도 國內에 2,584명, 日本에 1,548명, 도합 4,132명으로 1937년의 집계와 비슷하다.³⁾

3) 《濟州島勢要覽》, p.18, 濟州島, 1939.

당시 제주도해녀의 出稼狀況을 보면, 國內로는 慶尙南道가 압도적이지요, 다음으로는 慶尙北道와 全羅南道에 쏠리고 있으며, 日本 出稼는 對馬島가 가장 많고 靜岡·東京·高知 등에 몰리고 있다. 어차피 1937~8년경 제주도해녀의 出稼는 韓半島와 日本을 도합하여 4천명 내지 4천수백명에 달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의 통계는 소상치 않다. 다만 《韓國水産誌》 제2집에 보면, 慶尙南道 蔚山郡 大峴面 城外洞에 제주도 해녀의 出稼가 성하라는 기록이 보이며,⁴⁾ 朝鮮總督府 調査資料 《生活狀態調査(其二) 濟州島欄에 보면⁵⁾ 1926년 日本에 出稼한 제주도민수는 23,584명인데, 여자가 9,984명이라 하니 이 중에는 出稼海女도 꽤 끼어들었을 줄 안다.

石宙明의 《濟州島隨筆》에서도 1910년대의 出稼海女數가 밝혀지고 있다.⁶⁾

1915年頃の 出稼海女の 數: 約 2,500名인데 出稼地別로는 慶南에 1,700, 全南 多島海方面에 300, 其他에 500이고, 其出身地로는 牛島の 約 400名을 필두로 終達里, 杏源里, 法還里, 爲美里 等の 各 約 100名씩과 其他이다.

위에 2,500명이라 함은 韓半島에 出稼한 해녀만의 통계인 듯한데, 1937, 1939년의 통계와 비슷하다. 곧 1910년대에서 1930년대 사이에 별차가 없이 2,500명에서 2,800명쯤의 제주도해녀가 韓半島로 出稼했었다는 말이 된다. 《朝鮮》 1933년 7월호에 실린 田口禎憲의 “濟州島の海女”에서도 國內外에 出稼하는 제주도해녀의 수효는 도합 5~6천명이라 했으니, 위의 통계와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20세기에 들어서 光復이 될 때까지 제주도해녀의 國內외 出稼海女數는 5천명 내외였다는 말이 되며, 그 가운데는 日本에 몰질나갔던 해녀수만 해도 1천 수백명에 이르렀음을 주목해야 한다. 술한 해녀들이 봄에 섬 바깥으로 나가 가을에 돌아오곤 하는, 일종의 島民大移動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 ④ 우리나라 고향은
 제주야 성산포더

4) 《韓國水産誌》 제2집, p. 507, 舊韓國 農商工部 水産局, 1908.
5) 《生活狀態調査(其二) 濟州島》, p. 22, 朝鮮總督府, 1929.
6) 石宙明; 《濟州島隨筆》, p. 202, 普晉齋, 1968.

잠깐	몸지체
오사까	동성국
십이번지에	사는고나

(940)

〈語釋〉 우리나라	고향은
제주야	城山浦인데
잠깐	몸 두기
오사까	東成區
십이번지에	사는구나

日本으로 물질 나가기는 光復이 되면서 자연히 중단되었다. 그러나 제주도 출신 在日僑胞 가운데는 이미 光復前에 日本에 물질 나가고 歸國하지 않은 채 그곳에 눌러 살면서 裸潛漁業에 종사하는 여인들도 꽤 있을 줄 안다. 오늘날의 在日濟州海女數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舊左邑 東金寧·西金寧里만 해도 약 1백명은 되리라 하니 도합하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光復後 韓半島 곳곳에 대한 出稼는 나날이 불어나면서 慶南 中心의 出稼半徑이 점차 慶北의 九龍浦·良浦·甘浦 등 迎日灣 중심으로 옮겨져 갔고, 이른바 慶北裁定地區에만 해도 수천명씩 出稼하다가 점차 줄어들어 가더니 요마적에는 소수의 해녀만이 물질나가는 형편이다.

2

지난날 제주도해녀의 出稼는 돛배·發動船·汽船 등을 이용했었다. 대체로 全南·慶南 등 근거리에는 돛배를 타서 櫓를 저으며 나가는 게 일반이었고, 國內에도 먼 거리거나 大連(中國 遼東半島)·靑島(中國 山東省)·日本 등 외국에는 發動船이나 汽船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釜山 같은 가까운 거리에도 發動船으로 나갔었다가 하면, 大連처럼 먼 곳도 돛배를 타서 櫓를 저으며 나가기도 했었다. 필자는 1969년 7월, 해녀 조사차 소섬(北濟州郡 半島面)에 나갔을 때 下牛目洞의 한 할머니가 18세 때 실로 20일 동안이나 돛배를 타서 노 저으며 大連으로 물질 나갔었다는 회고담을 들으면서 사람

삶의 엄숙함을 온몸으로 實感하고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노파는 돛배에 보리쌀을 가득 싣고 밥을 지어먹으면서 20일 동안이나 櫓를 젓고 大連에 이르고 보니 아랫옷 엉덩이부분이 다 닳았었다고 할 때 그 놀라운 獻身沒入度에 머리가 수그러지지 않을 수 없었다.

- | | |
|--------|-------|
| ⑤ 배똥알을 | 놈을준덜 |
| 요네착사 | 놈을주랴 |
| 젓이라 | 젓이라 |
| 뒤엿섬일랑 | 멀어지곡 |
| 앞엿섬일랑 | 빅디여지라 |

(876)

- 〈語釋〉 배똥 아래를 남을 준들
 요 노짝이야 남을 주랴
 저어라 저어라
 뒤엿 섬일랑 멀어지고
 앞엿 섬일랑 가까와져라

- | | |
|--------|------|
| ⑥ 성산일출 | 빅려두곡 |
| 소완도로 | 가는구나 |
| 완도지방 | 넘어가근 |
| 신기도영 | 넘어가곡 |
| 금당아로 | 넘어가근 |
| 저큰바당 | 다지나곡 |
| 지누리대섬 | 넘어가근 |
| 나라도로 | 전당훈다 |
| 나라도를 | 넘어가곡 |
| 뽕돌바당 | 지나본다 |
| 돌산을 | 넘어가근 |
| 솔치바당 | 건너간다 |
| 솔치바당 | 건너가민 |
| 남헤로다 | 노양목 |
| 사랑도바당 | 넘어간다 |
| 물파랑것도 | 지나가근 |

지계장십포	넘어가곡
가닥동곳	지나가민
등바당을	넘어간다
다대곳을	넘어가민
부산영도	이로구나

(874)

〈語釋〉	성산일출	버려 두고
	소완도로	가는구나
	〈완도지방〉	넘어가서
	〈신기도영〉	넘어가고
	〈금당아〉로	넘어가서
	저 큰 바다	다 지나고
	〈지누리대섬〉	넘어가서
	〈나라도〉로	다다른다
		〈나라도〉를 넘어가고
	〈뽕돌바당〉	지나 본다
	〈돌산〉을	넘어가서
	〈솔치바당〉	건너간다
	〈솔치바당〉	건너가면
	남해로다	노량목
	〈사랑도바당〉	넘어간다
	〈물과랑것도〉	지나가서
	〈지계장십포〉	넘어가고
	〈가닥동곳〉	지나가면
	〈등바당〉을	넘어간다
	〈다대곳〉을	넘어가면
	부산 영도	이로구나

⑤는 櫓를 젓는 의욕을 戲畫的으로 極大化하여 여인의 생명이라 볼 수 있는 貞操보다도 오히려 주어진 生業에 獻身한다는, 여지없는 표현인데, 그 決死的意志가 어렵다. ⑥에서는 城山浦에서 돛배를 타고 출발하여 釜山 影島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바다 이름이 살살이 나열되어 있다. 해녀들에게는 바다가 곧 또하나의 발이요 生活道場이기 때문에 자상한 海圖가 이미 그들의 머리속에 어련히 그려져 있다. 물에 있는 발과 地境이름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19세기말부터 釜山·東萊·蔚山 등지에 나가기 비롯한 제주도해녀들은 거의 日本의 海藻業者의 모집에 응했었다. 곧 해마다 음력 정초 1~2월경이 되면 客主들은 부산에 있는 海藻商人들로부터 자금의 공급을 받고 제주도에 속속 몰려 온다. 인연을 따라 해녀가 술한 마을들을 돌며 實生活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出稼海女들을 모집한다. 응모자에게는 물질나간 현지에서의 採取物을 有償으로 사들인다는 확약과 出漁準備資金, 혹은 家計를 돕기 위한 前渡金을 지급하거나 食糧 또는 生活必需品를 대부하면서 인솔해 갔었다. 가끔 남편에게 충분히 양해를 얻지 않고 데려가거나, 처녀들일 경우 어쩌다가 유괴에 가까운 수단을 썼던 경우도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또한 해녀들에게 지출한 前渡金에 대해서는 高利를, 供給物에 대해서는 利子를 덧붙이는 등 폐단도 심했었다. 客主들은 이력저력 해녀들의 환심을 사고 해녀들을 15~30명 단위로 모집해서 出稼地로 떠난다. 돛배를 타고 나갈 경우면 客主는 보통 船主를 겸하기도 했다.

배에는 해녀들과 船主밖에 선원 두셋이 함께 탄다. 보리쌀이나 좁쌀 등 식량도 가마니로 넉넉하게 싣는다. 물질나간 곳에서 식량을 사들이기가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애써 번 돈을 알뜰히 備蓄해 오기 위한 굼뜬한 대책이다. 해녀들은 <테왁>·<망시리>·<중계호미>·<빗창>·<소살>·<까꾸리> 등 海女器具와 海女服, 炊事道具와 寢具 등도 챙기고 出稼하는데 이른바 <물질간다> (혹은 물질칸다, 물질나간다)고 말한다. 해녀에게 젖먹이 어린애가 있어서 떼어둘 수 없거나 고향에 돌봐 줄 사람이 없거나 할 경우엔 가끔 어린애를 데리고 가는 수도 있다. 마지못해 어린애를 데리고 갔을 때에는 술한 逸話가 따르게 마련이고 드문 일이지는 하나, 애꿎은 事故에 부딪는 경우도 있다.

해녀들은 질푸른 海原을 집으로 삼고 며칠씩 怒濤에 시달리면서 韓半島 방방곡곡의 出稼地로 달린다. 돛배가 風向과 거슬러 가거나, 바람이 너무 잔잔할 때 해녀들은 일제히 櫓를 젓는다.

- | | |
|--------|-------|
| ⑦ 브롬이랑 | 밥으로먹고 |
| 구름으로 | 똥을싸꼭 |
| 물절이랑 | 집안을삼앙 |
| 설룬어멍 | 떼여두꼭 |

설룬아방	메여두곡
부모동생	이별호곡
한강바당	집을삼앙
이업을	하라호곡
이내몸이	탄생호든가

(870)

〈語釋〉 바람일랑	밥으로 먹고
구름으로	똥을 싸고
물결일랑	집안을 삼아
젊은 어머니	메어 두고
젊은 아버지	메어 두고
부모 동생	이별하고
한강바다	집을 삼아
이 업을	하라 하고
이내몸이	탄생하던가

⑧ 요늣동이	무싱거먹언
술쳐싱고	이여싸나
슴통을	걸어싱가
부즈통을	걸어싱가
궁긱궁긱	잘올라온다

(900)

〈語釋〉 요 놀덩이	무엇 먹어
살졌는고	이여싸나
임삼 통을	걸었는가
부자 통을	걸었는가
궁긱궁긱	잘 올라온다

⑦에서 노래되었듯이 제주해녀들이 바다 건너 물질나갈 때에는 바다를 온통 집안으로 둔갑시키며 달린다. 바람일랑 밥으로 먹고 구름으로 똥을 싸고 물결 일랑 집안을 삼아서 바다에서 산다. 海原을 달리며 櫓를 젓고 <海女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곧 돛배를 타서 섬 바깥으로 물질나가고 들

어울 때 및 제주도 연안이나 出稼地의 해안에서 배를 타고 이른바 <뱃물질>하며 櫓를 저을 때, 해녀들은 흔히 <海女노래>를 부른다. 지난날에는 제주도의 연안이나 出稼地의 해안에서 <뚝물질>하러 배지어 앞바다로 헤엄쳐 가면서도 불렀었다. 헤엄쳐 나가며 부를 때에는 그 가락이 헤엄치는 동작에 따라 비교적 빠르다. 海路에서 엄청난 怒濤에 부딪혔을 때에는 櫓를 짓기가 한결 힘겨워지고 역세어진다. ⑧에서처럼 엄청난 怒濤에 직면할 때 자연의 거창한 威力을 實感하기도 한다.

船主는 창망한 바다를 달리다가 航海의 安全을 기원하는 뜻으로 배위에서 告祀를 지내기도 한다. 보통 돼지 한마리를 犧牲하는데 이는 물질 떠날 때 이미 준비해서 배에 싣고 온 것. 대체로 물질이 거센 楸子島 앞바다쯤에서 致祭한다. 船主 혼자 祭官이 되어 고사를 치르고 祭需는 함께 탄 해녀들과 船主·船員들이 음복하는 것이 일반이다. 파도가 몹시 거칠어서 배 위에서 告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을 때에는 돼지 뼈에서 조금씩 베어낸 祭需를 바다에 던지면서 일행들의 無事故와 亨通을 빌었었다.

出稼하는 뱃길에서의 千辛萬苦와 逸話를 일일이 기록하면 책 몇권에 이를 만큼 그 부피와 깊이는 엄청날 줄 안다. 海女出稼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해녀들의 生涯歷(life history)을 살살이 조사, 기록하는 일은 우리들이 召命感을 갖고 다룰 만한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필자도 이들의 出稼事例를 일부 조사, 소개한 바 있었지만,⁷⁾ 이 작업은 단지 해녀나 <海女노래>의 實相을 파악하는데 머무는 게 아니라, 사람살의 眞摯性和 獻身沒入度를 實證하는 데 生動하는 자료로서 이바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앞에서도 지적했었지만, 1969년 7월 소섬(北濟州郡 牛島面)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下牛目洞의 한 노파는 20일 동안이나 櫓를 저으면서 遼東半島 大連까지 물질나갔었던 일을 體驗했었다. 그 노파는 九龍浦·甘浦·蔚山·方魚津·下浦·機張·靑山島·甫吉島·對馬島·仁川·長津·大連 等地를 살살이 누비어 出稼했었다는 것이다. 함경남도 長津을 나갈 때에도 16일 동안이나 노 저으며 이르렀었다고 한다.

소섬(北濟州郡 牛島面) 東天津洞의 조완아(여·72)노파는⁸⁾ 16세에 對馬島에 첫

7) 金榮敦·金範國·徐庚林; “海女調査研究”, 《耽羅文化》 제5호, pp.108~122, 濟州大耽羅文化研究所, 1986.

8) 같은 글, 같은 책, pp.108~111.

出稼한 이래, 淸津(18세)·黃海道(24세)·忠淸道(27세) 등 여러곳을 드나들었었다. 친정인 下道에서 16세에(1930) 첫出稼를 해서 번 돈으로서 600평의 밭을 마련했었고, 24세에(1938) 黃海道에 나갔을 때에는 15일 동안이나 배 위에 살면서 이 섬 저 섬을 돌면서 이른바 <난바르>를 했었는데, 마침 배안에서 애를 分娩했었던 일이 있었다 한다. 일행들과 함께 나간 길이라 제 사정 때문에 回航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배 위에서 조리하며 지냈었는데 그 때 태어난 자식은 오늘날에도 잘 지낸다 한다.

舊左邑 杏源里의 강미춘(여·65)노파는⁹⁾ 17세에 <애기上軍>(나이 어린 上軍海女)이라 일컬어질 만큼 물질에 능란했다. <海女노래> 등 많은 민요도 부를 줄 알며 어렸을 때 은밀히 배운 <海女歌>도 어렵히 기억하고 있다. 17세에 울산·성의·목섬을 <초용>(첫出稼)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20수년간 국내외를 누벼다녔다. 日本(23세)·江原道 唐津(24세)·閑山島 대섬(26세)·忠淸南道 안흥 앞섬(33세)·巨濟島(34세)·海雲臺 옆 해창(36세, 37세) 등 그 出稼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그 술한 出稼經驗 가운데에서도 한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은 24세 때 이북에서 해방을 맞이하여 九死一生으로 越南했던 일과, 33세에 忠淸南道에 나갔을 때 白翎島를 거쳐 小靑島에 이르러 물질하다가 모진 風浪으로 배가 침몰해서 몇친구를 여의었던 悲痛한 사건이다. 23세에 東京 하시마란 곳에 出稼한 때에는 어린 딸애를 데리고 나갔었는데, 인상에 남을 만한 일들이 술하다. 예전에 국내에 出稼할 때에는 좁쌀 10말(小斗)씩을 넣은 가마니 둘과 <대마리구덕>이란 커다란 바구니에 좁쌀 5말(小斗)을 더 챙기는 등 넉넉한 식량을 준비했었다. 17세에 첫出稼했을 때에도 겪은 일이지만, 出稼地에 이른 일행은 물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安全과 豐漁를 비는 뜻에서 날짜를 택일하고 입살을 白紙에 쓴 <지>를 바닷물에 던지면서 祝言하고 龍王에게 致祭하는 관례가 있었다.

1930년대초 제주도해녀의 出稼過程이나 그 實相에 대하여 田口楨憲는 “濟州島の海女”(《朝鮮》1933년 7월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나 이제나 客主들의 橫暴는 만만치않는 두통거리임이 드러난다.

9) 같은 글, 같은 책, pp.115~117.

(前略)

全羅南道及び全羅北道の沿岸への出漁者は3・4噸級の帆船で目的地に直航し、慶南・江原・咸鏡の各道及び内地方面への出漁には、發動船便に依り直に目的地に向ふ者もあるが、大抵は汽船によつて釜山に到り、牧ノ島の根據地から、目的地に出漁するのが普通である。出漁海女の漁獲物は主として、石花菜・和布・銀杏草・櫻草・海蘚・搗布灰・鹿面菜・イギス・オゴ・エゴ・雜草・鮑・螺螺等の海草又は貝類である。

従來の海女の出漁状況を見るに、少數の獨立出漁者を除く外、悉く客主(問屋)の手に依りて出漁する。客主は釜山牧ノ島に居住し、其の數60餘名(内40名餘は本島出身者)あるが、是等客主は出漁地海藻商の配下に屬し、海女の募集及び監督に當り、毎年陰曆1,2月頃に來島し海女を募集、應募者には汽船賃及び食費を前貸して出漁を契約する。

客主が豫定數の海女を得んとする結果、或は夫の承諾なき婦人と契約を結び、或は未婚の婦女を誘拐し、或は前渡金に對して高利を貸る等の弊あり、多くは本夫・近視者等の監督付添なくして他の男子と接觸する爲め出漁先で重婚するあり、弊害尠からざるものがある。又出漁地に於ける監探は、甚しく漁場を荒廢せしめ、産額漸次減少して此の儘放任を許さざる状態に立至つたので、大正9年より海女漁業組合を設け(1)海藻繁殖保護、(2)海女の付添人及び船頭(槎工)の除弊、(3)海女の風紀改善、(4)海女の救済保護、(5)客主の撲滅について、統制指導を加へ、近時其の實績を擧げつつある。

이에 드러나는 海女漁業組合은 1920년 海女들의 權益, 특히 出稼海女들의 救済保護 및 福利増進을 위하여 설립되었었는데, 1936년 일반 漁業組合과 병합될 때까지 특히 釜山・東萊・蔚山 등지로 出稼하는 제주도해녀들의 權益을 위해 이바지한 바도 많았다. 말하자면 당시 부산에 세워진 朝鮮海藻株式會社와 여러 차례 절충하면서 채취물 공동판매를 위한 利權擁護에 힘썼고 出稼海女들을 위한 宿舍建築, 조합원 자녀들을 위한 獎學, 조합원이 작업하다가 조난당했을 때 구조해 준 사람에게 대한 褒賞 등이 주요업적이었다. 다만 당시는 日帝治下였고 濟州島司가 조합장을 겸했었기 때문에 組合費 및 갖은 명목의 手數料條로 收奪이 이어졌었는가 하면, 特定の 日人에게 商權을 내주는 등 행패가 가시지는 않았다. 그것은 1932년 1월의 이른바 ‘海女事件’때의 抗日鬭爭의 實相을 보더라도 곧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濟州島海女漁業組合沿革에 실린 ‘組合設立의 趣旨’에서 필요한 몇가지 사실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① 제주도해녀들은 35년전, 곧 1885년부터 慶尙南道에 出漁하기 시작해서 점차 多島海·慶尙北道·江原道·咸鏡道에 이르고, 드디어 韓國各道沿岸은 물론 日本·러시아·中國 沿海에도 出稼했는데 出稼人員은 3,500명, 漁獲高는 50여 만원의 거액에 달했었다.

② 제주도내에서만 물질하는 해녀수는 7,300명, 그 漁獲高는 25만원에 이르러 본도의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은 자못 컸다.

③ 제주도해녀의 出稼方法을 보면, 獨立出漁者는 드물고 그 대부분은 부산 海藻商들에게 예속되어 있는 客主에 따라서 모집되고 그 감독을 받는다. 가끔 집안의 합의를 못 받고 떠나게 됨으로써 風紀上 不美로운 일이 일어날 뿐더러, 그 소득이 부당하게 착취되기도 했다.

④ 제주도해녀, 특히 出稼海女の 權益保護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1917년부터 조합 설립을 논의해 오다가 1920년에 이르러 海女漁業組合이 발족되었다.

3

韓半島 연안 곳곳의 出稼地에 이른 제주도해녀들은 몇몇씩 그곳 民家の 房을 빌어서 5~6개월 동안 물질한다. 보통 3월초에 떠나서 9월초 秋夕을 앞두고 귀향한다. 물론 自炊生活이며 그 食生活은 아주 質朴하다. 보리쌀·좁쌀과 된장은 고향에서 마련해 갔었고 부식은 마련하기가 힘들었다. 가다가 채취된 海產物로 物物交換함으로써 부식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었다. 여러날 배 위에서 지내며 下船하지 않고 해녀질을 하는, 이른바 <난바르>를 할 때에는 배 위에 화덕을 구며 장작으로써 밥을 지어 먹곤 했었다. <난바르>일 때에는 물때에 따라 배에서 자다가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이부자리도 그냥 두어둔 채 물질하는 경우도 흔했다. 좁쌀밥도 제때에 먹을 수 없었던 모진 쓰라림을 강조하여 회고하는 노파해녀들을 오늘날에도 흔히 만난다. 빨감은 물질을 쉬는 날에 직접 들판으로 나가서 채취해다가 때기도 하고 船主가 사들여다 나눠 주기도 했다.

제주도해녀들은 가급이면 出稼地의 습속에 익숙어지려고 노력한다. 제주도해녀들끼리만 지낼 때야 별문제이지만, 외출하거나 할 때의 言動은 그곳 주민

들과 이내 비슷해진다. 곧 타향에서 異邦人視되기를 꺼려하는 그들은 살아가기 편리한 대로 적절한 保護色을 마련하며 지내는 터이다. 필자가 1967년 여름 慶尙北道 九龍浦·甘浦·良浦·溪院·大浦 등지로 出稼海女를 조사하러 나갔을 때 목격한 일이지마는, 제주도에서 물질나간 해녀들은 음료수를 길어 나르는 법이나 말씨 따위가 아주 그곳 習俗에 젖어 있어서 어느 누구가 出稼海女인지 여부를 얼른 판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出稼海女들이 머무는 집의 房賃는 다달이 얼마씩 지불하기도 하고 그대로 신세지는 경우도 있다. 1967년의 경우 九龍浦·大浦·良浦·甘浦 등지에서는 한 달 3백원내외였다. 房賃 없이 지낼 때에는 裸潛漁業을 하는 틈에 주인집의 농사일을 돌봐 주기도 하고, 주인이 소라·전복 등 貝類의 中商人일 경우엔 그 일을 거들어 주면서 자기가 갠 貝類로써 房賃를 계산하기도 한다. 집주인이 房賃를 끝내 사양해서 보답할 길이 없을 경우에는, 그곳을 떠나 올 때 집주인의 韓服 한벌을 선사하면서 사례하기도 한다. 出稼한 곳이 반년쯤 지낼 만한 알맞는 民家가 없는 해안일 경우면, 드문 일이긴 하나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다가 자그만 오막살이를 임시로 꾸미고 지내는 경우도 있다.

해녀들은 가끔 젓먹이 어린애를 데리고 出稼하는 수도 있다. 고향에 돌볼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떼어 두지 못하고 데리고 간다. 데려간 어린애는 宿所에 두어둔 채 업저지를 마련하여 돌보도록 하기도 하고, 작업 나갈 때 배에 함께 태워서 데리고 다니기도 한다. 해녀가 작업할 때에는 船主가 어린애를 돌봐 주기도 하는데, 드문 일이긴 하나 자칫하다가 배가 뒤엎이거나 실수로 말미암아 어린애를 바다에 떨어뜨려 여의는 경우마저 있다.

船主의 아내도 함께 出稼하는 경우가 많으며, 船主와 그곳에서 살면서 물질을 한다. 같은 배로 出稼한 20~30명쯤의 해녀들은 이웃에들 살면서 일종의 班編成을 한다. 해녀 구루우프마다 班長을 두고 班長은 인솔자와 더불어 작업시간을 정해서 반원을 동원하고 반원들의 權益과 事故, 疾病 등을 돌본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개개인이 出稼하는 곳이 한결같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제주시 삼도이동 梁民善(1966년 당시 59세)의 경우를 보면, 17세 때 海雲臺로 出稼하기 비롯해서 紅島·元山·對馬島·東草·注文津·蔚珍·蔚山 등지로 번갈아가며 出稼했었고, 그 사이에는 日本에도 2년간 나갔었다. 그러니까 出稼했었던 동해안 곳곳과 日本의 특유한 風情은 세월이 가도 그의 귀중한 추억으로 간직되어 있다.

소섬(北濟州郡 牛島面)의 金昌娘(1969년 당시 55세)의 경우는 17세때 對馬島로 나가기 비롯해서 南海·三千浦·機張·牛鶴里(麗水 남쪽 金鰲島內)·巨濟島 閑山面 등을 번갈아가며 出稼했었다 한다. 같은 소섬의 韓順玉(1969년 당시 50세)은 16세때부터 機張에 3년간 나가기 시작해서, 日本의 九州·四國에도 나갔었고 大阪에는 8년간이나 정착하면서 물질했었는가 하면, 광복후에는 巨濟島에서 12년간이나 出稼生活을 치렀다 한다.

- ⑨ 우리베는 잘도간다
 우리갈퇴 베려보라
 서월보단 더멀고나
 강남보단 더멀고나
 (916)

〈語釋〉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우리 갈 데 바라보라
 서울보다 더 멀구나
 강남보다 더 멀구나

- ⑩ 설룬어멍 저얼골은
 눈에송송 베이어나
 설룬애기 우는소리
 귀에쟁쟁 들림서라
 (927)

〈語釋〉 젊은 어머니 저얼굴은
 눈에 썩썩히 보이더라
 젊은 아기 우는 소리
 귀에 썩썩 들리더라

제주도해녀들은 國內外 각처 머나먼 곳까지 出稼했었다. 그당시 교통편 사정으로는 너무나 아득한, 서울보다도 江南보다도 더욱 먼 곳까지 물질나갔었다. 거친 파도를 헤치며 달리는 뱃길에서, 千里他鄉 異域에서의 出稼生活 속에서, 정다운 어머니의 얼굴이 그림고 두고 온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함

은 어쩔 수도 없는 實情.

出稼地에서의 漁撈方法은 고향 제주에서와 별다름이 없다. 곧, 바닷가에서 헤엄쳐 나가서 하는 작업을 <갯물질>이라 하며, 배를 타서 먼 바다로 나가 작업할 경우는 <벉물질>이라 하는데, 出稼한 곳에서도 형편에 따라서 <갯물질>이나 <벉물질>을 택한다. <벉물질>일 경우에는 채취물에 대한 控除口實이 많아지고 그 비율이 높아진다. 만약 해녀들이 이용하는 배를 수리해야 할 경우엔 그 경비를 해녀들이 공동부담해야 할 뿐더러, 船主에 대한 謝禮 등 이력저력 控除할 것은 많았어도 收益은 대체로 <갯물질>보다 <벉물질>이 낫다. <벉물질> 나갈 때에는 10~20명쯤이 한배를 타고 나가며, 하루 4~5회 물질한다. 한 번의 물질을 마칠 때마다 배에 올라서 불을 쪼며 왁지지껄 떠들고 30분쯤 쉬고 난 다음, 다시 入漁하곤 하는 것도 제주에서와 같다. 제주에서와 다른 점은 <난바르>라는 漁撈方法이다. <난바르>란 해녀들 일행이 며칠동안 배 위에서 함께 宿食하면서 바다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하는 물질이다.

이른봄에 물질나가서 반년쯤 지내다가 秋夕 직전에 歸鄉하는 제주도해녀들이 실제 작업하는 날짜는 그 出稼期間의 약 반절쯤 된다. 파도가 너무 거세거나 바다 사정이 좋지 못한 날에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질을 못해서 쉬는 날이면 宿所에서 뜨개질·刺繡 등을 하거나, 市場出入이나 衣服 손질을 하기도 하고 벉들끼리 談笑하며 지내기도 한다. 가다가 주인집의 농사일을 거들어 주면서 훈훈한 人情을 깔기도 한다.

1973년 소섬에서 표본조사한 바에 따르면이라도 한달 동안의 平均作業日數는 15일로 드러났다.¹⁰⁾ 이른바 '오금엿떡'¹¹⁾으로 살아 가는 제주여인들로서는 평균 이틀에 하루씩 맞이하는 餘暇란 고향의 삶에서는 꿈꿀 수도 없는 홀가분함이다. 이런 홀가분함은 모진 고생을 무릅쓰고도 해녀들이 異域으로 出稼하게 되는 한갓 이유라 볼 수도 있겠다. 가끔 出稼海女들을 위한 野遊會가 열려지기도 하며, 모든 일이 순조롭고 漁獲高가 꽤 올랐을 때에는 드문 일이기도 하나 觀光길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어차피 그들의 出稼目的은 물론 근근이 지탱되는 家計를 위함이다.

10) 《國文學報》 제5집, p.119, 濟州大國語國文學會, 1973.

11) 拙著, 앞의 책 73번의 자료에 드러나는 말로서 알뜰한 살림은 오금을 구부렸다 켜다 하는 부지런의 결실로 이룩된다는 小富由勤이라는 뜻.

- ⑪ 돈아돈아 말몰론돈아
 돈의전체곳 아니민
 육로천리 수로천리
 만리강산 어디엥오리
 돈아돈아 말몰론돈아
 귀막은돈아 눈어둔돈아
 부르경은에 돌아오라

(928)

- 〈語釋〉 돈아 돈아 말 모른 돈아
 돈의 까닭 아니면
 陸路 千里 水路 千里
 만리 강산 어디라 오리
 돈아 돈아 말 모른 돈아
 귀먹은 돈아 눈 어두운 돈아
 부르거들랑 돌아오라

- ⑫ 어린애기 메여두곡
 늙은부뉘 메여두곡
 정든낭군 메여두곡
 돈아니름 나무사오리
 돈아돈아 말몰론돈아
 귀막은돈아 눈어둔돈아

(944)

- 〈語釋〉 어린 아기 메어 두고
 늙은 부모 메어 두고
 정든 낭군 메어 두고
 돈 아니름 내 어찌 오리
 돈아 돈아 말 모른 돈아
 귀먹은 돈아 눈 어두운 돈아

出稼海女들은 가다가 그곳 젊은이들에게 유혹당하기도 하지만, 굳은 志操로써 이를 물리친다. 어쩌다가 그곳 남성과 순조로운 교제와 결혼 끝에 出稼地에서 정착생활하는 경우도 더러 있긴 하지만, 본디 제주도 여인들은 土着性이 강

하기 때문에 좀처럼 본토인과 결합되지 않으며, 설령 혼인하는 경우라도 指彈 되기 쉽다.

- ⑬ 이야기차 혼자가자
가민가곡 말뼌말써
정상도로 씨집을가라
(937)

〈語釋〉 이야기차 어서 가자
가면 가고 말뼌 말지
정상도로 씨집을 가라

4

광복이 되면서 제주도해녀들의 出稼半徑은 한반도에 국한되었고 그 인원은 해마다 수천명에 이르렀었다. 해녀들은 1950년대에 이르면서 慶尙北道 九龍浦·甘浦·良浦 일대에 집중하여 나갔다. 이곳에는 19세기말부터 제주도해녀가 해마다 入漁해 오므로 이에 터전해서 1956년 入漁價行權을 裁定받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제주도해녀의 入漁價行權을 인정받은 九龍浦·甘浦·良浦 세 漁業協同組合 管內 第一種共同漁場을 ‘慶北裁定地區’라 이른다.

제주도해녀들은 어찌하여 정든 고향을 버리고 千里他郷으로 出稼하게 되었을까. 出稼理由는 한마디로 더 나은 收益을 올리려 함이다. ‘慶北裁定地區’를 비롯한 韓半島 각연안에는 제주도 연안에서보다 값진 우뭇가사리나 貝類가 솔하게 자라는데도 그곳에는 이를 켤 만한 해녀가 별로 없다. 더러 있다더라도 그 技倆이 부족하다. 그래서 19세기에서 제주도해녀 상당수가 ‘慶北裁定地區’를 비롯하여 한반도 각처로 우선 나가게 된 것이다.

해마다 韓半島 각처에 出稼해 온 해녀수는 얼마나 되는가. 出稼海女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거의 불가능하다. 공식적인 집계를 내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 집계의 信憑性이 문제된다. 해녀들이 出稼할 때에는 의당 관제당국에 申告를 거치고 出稼證을 교부 받아서 나갔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채 제멋대로 密出稼하는 수효가 상당수에 이른다. 예를 들면 慶尙北道 大浦地區의 경우 入漁價

행에 따른 法的裁定人員은 1956년 裁定 당시부터 166명이었는데, (慶北裁定地區의 裁定人員은 1,070명) 1967년 필자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했던 결과 大甬地區에 出稼한 해녀수가 400명내외에 이르렀었다. 그런데도 제주도 수산당국의 出稼海女 통계는 1967년의 경우 慶北裁定地區를 통틀어도 裁定人員 1,070명에 훨씬 모자란 608명으로 나타났음을 <表1>에서 볼 수 있다. <表1>은 제주도 수산당국이 제시한 1960년대의 出稼海女數인데 出稼地의 現地調査인 標本調査에 따르면, 實際 出稼海女數는 <表1>의 統計의 2배 내지 3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表1> 濟州海女の 出稼數

出稼地 年 度	慶 北 地 區			慶 南	江 原	全 南	其 他	計
	裁 定	其 他	小 計					
1962	1,070	514	1,584	1,356	787	332	131	4,090
1963	1,120	200	1,320	696	125	71	3	2,215
1964	1,223	131	1,354	378	165	108	66	2,071
1965	976	73	1,049	258	113	56	62	1,538
1966	1,021	82	1,103	338	188	143	131	1,903
1967	608	27	635	788	129	248	109	1,909
1968	619	35	654	159	81	84	115	1,093
1969	208	8	216	457	145	282	67	1,167

資料：1968~1970年度 《濟州道水産現況》

1967년 2월 “慶北裁定地區 入漁慣行權 消滅確認訴訟”이 大邱池法에 提訴되면서 제주도해녀의 慶北出稼가 크게 말성을 밧고 제주도 産業構造도 바뀌어 자자 出稼海女數도 점차 줄어들어 갔다. 요마적에도 더러 출가는 하지만, 그 수효는 얼마 되지 않는다. 出稼人員이 激滅되는 이유는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제주도해녀의 激滅~1960년대 이래 제주도에 휘몰아친 柑橘生産 붐으로 주민들의 産業構造가 改變되고 少女들에게 불어닥친 高學歷趨勢 등으로 해녀가 급자기 줄어들음으로써 出稼海女數도 점차 감소되었다.

② 入漁慣行紛糾~1967년 2월, “慶北裁定地區 入漁慣行 消滅確認訴訟”을 그

곳 어업협동조합에서 提訴함에 따라, 迎日灣 일대에 대한 入漁가 소란스러워졌을 뿐더러, 종전부터 늘 말썽을 일으켜 온 出稼海女에 대한 權益保障이 어려워지게 되자 물질나가기를 점차 꺼리게 됐다.

③ 水産當局의 出稼 삼가기 중용~入漁慣行權을 둘러싼 소요가 이어지고, 도내에서도 標潛漁業에 따른 소득이 높아져 가자, 제주도 수산당국에서는 이른바 “해녀 안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임으로써 해녀의 遠征을 행정적으로 막기에 이르렀고, 요마적에도 소수의 해녀가 계속 나가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어쨌든 해녀들은 해마다 술한 바다를 드나들다가 보면 세월은 가고 나이는 들어 諸行無常임을 문득 실감하게 된다.(14) 바닷물속도 제각기 달라서 靑龍·黃龍 노는 듯한 바다가 있고 무자맥질하는 자신이 흡사 15에서 보듯 龍으로 變身한듯 착각하기도 한다.

⑭ 쭈무나문 설나문엔
 허서방도 막으레가꼭
 마으나문 쉬나문나난
 오단임도 돌아상간다
 (982)

〈語釋〉 수무남은 서른남은엔
 허서방도 막으려 가고
 마흔남은 쉰남은 나니
 오던 임도 돌아서 간다

⑮ 진도바당 수지관물은
 청룡황룡 노는듯한다
 청룡황룡 아니논물엔
 용인드끼간 꼴라앗암서라
 (934)

〈語釋〉 진도바다 깊은 물은
 청룡 황룡 노는 듯한다
 청룡 황룡 아니 논 물엔
 용인 듯이 가 갈았고 있더라

낮설은 異域千里에 나가서 “저승길이 오락가락”¹²⁾ 生死를 걸어놓고 裸潛漁業하는 出稼海女들은 과연 옛부터 應分の 待遇와 收益을 확보해 왔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갖은 방법으로 人權蹂躪과 收奪만을 당해 왔다. 第一種共同漁場의 不法賣買에 따른 漁場主의 가혹한 收奪과 橫暴, 惡德引率者의 不當榨取와 채취물 요금청산의 부당한 지연, 入漁價行權의 無視 등등 그 收奪實狀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濱賣行爲, 곧 共同漁場의 賣買行爲는 엄연한 違法이다. 水產業法 第10條에 보면 “共同漁業은 일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漁業者의 漁業經營上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면허한다”고 규정되고 있는데, 共同漁場의 漁業權者인 그곳 漁協에서는 상당한 行使料를 받고 특정인(錢主·窟岩主)에게 멋대로 팔아 넘기는 수가 많다. 일정한 바다의 漁業權을 독점하게 된 錢主(窟岩主)는 이른바 인솔자들을 포섭하여 선량한 제주해녀들을 모집해다가 일정기간 雇傭入漁케 하는데, 그 權益은 자칫 收奪당하게 마련이고 해녀들은 不可抗力으로 부당한 收益을 敢耐할 길밖에 없었다. 錢主의 不當收奪 위에 인솔자는 인솔자대로 引率手數料, 入漁行使料, 漁協手數料, 指導員手當, 委託販賣手數料, 雜費 등의 명목으로 뜯기고, 또한 不正檢斤이 자행되고 나면, 해녀들이 받는 요금은 時勢의 몇분의 1밖에 안 되고 만다. 不正檢斤이란 주로 우뚝가사리를 저울질할 경우, 응당 자그만 저울을 썼어야 정확한 것임에도 큰 저울을 써서 저울눈을 속인다거나, 날것 세근이면 마른것 한근으로 계산해야 할 텐데, 3.5근, 4근을 한근으로 계산한다든가 하는 경우다. 더구나 料金清算을 까닭없이 늦추다가 橫領하는 예도 있다. 필자는 도내, 또는 慶北裁定地區 出稼海女 조사 도중 지난날 出稼했을 때 料金を 청산 받지 못했던 해녀들을 가끔 만났었다.

간여린 해녀들이 獻身沒入하는 出稼의 權益이 함부로 짓밟히는 데 대해서는 예전부터 關係當局이나 뜻 있는 人士들 사이에서 비상한 관심을 쏟아 왔다. 1920년 海女漁業組合이 설립된 것도 出稼海女들의 정당한 收益과 人權을 보장하고 客主들의 행패를 제거하자는 데 초점을 두었었다. 海女漁業組合은 釜山·蔚山·東萊 등지로 나가는 해녀들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 바도 많았으나, 日帝 治下의 半官制機構였으므로 巨額의 出稼證 交付手數料를 거둬들이는

12) 拙著, 앞의 책 832번의 자료에 드러나는 말.

등 본디의 취지를 살릴 수는 없었다.

광복이 되어도 出稼海女들에 대한 權益侵害는 사라질 줄 몰랐다. 그래서 水産業法을 새로 제정하는 데 뜻 있는 이들이 힘기울여 權益保障의 立法化를 관철시켰다. 그것은 우선 水産業法 제40조의 設定을 들 수 있다. 곧, 그 제1항에서 入漁慣行을 인정한다고 못박았고 그 제2항에서 멋대로 받기 쉬운 入漁料를 地方長官의 인가를 받아야 징수할 수 있도록 法制化해 놓았다. 또한 해녀 보호를 위해 1950년 釜山을 거점으로 韓國潛嫂漁業水産組合이 결성되었고, 影島 중심으로 潛嫂權益擁護會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韓國水産潛嫂擁護會가 나타남으로써 釜山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의 濱賣行爲 根絶 및 出稼海女の 救濟, 保護에 상당한 보람을 남겼다.

어차피 出稼海女の 權益을 말할 때면 “慶北裁定地區 入漁慣行權” 문제로 그 焦點이 쏠린다. 이 일대에는 예전부터 제주도해녀가 술하게 出稼했었고, 따라서 濱賣와 收奪行爲도 극심했었다. 당시 慶南 蔚山郡 某漁業組合의 직원이었던 金宗大씨는 그 收奪의 實相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으며 스스로 해녀대표가 되어 濱賣의 不當性을 지적하면서 入漁慣行權을 제정받는 데 앞장섰었다. 1954년부터 入漁慣行權 裁定을 서둘더니, 드디어 1956년 1월 慶北 陽南·甘浦·良浦·九龍浦·大甫 各漁業組合¹³⁾ 享有 共同漁場內에 제주도해녀 1,070명의 入漁慣行을 裁定받기에 이르렀다. 이 入漁慣行權의 裁定은 入漁慣行을 인정한 水産業法 제40조와 入漁慣行에 관하여 紛爭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인이 水産廳長에게 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는 同法 제69조에 따른 것인 바, 그 共同漁場 全域에 걸쳐 매년 5월 1일부터 8월말까지 天草·銀杏草·櫻草·貝類를 裸潛漁業方法으로 採取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入漁慣行權 制定이 실현되자, 종전에 가끔 말썽을 빚던 引率者(客主·船主)도 慶北知事가 嚴選하는 등¹⁴⁾ 명목상으로는 出稼海女の 權益이 충분히 보장되는 듯 했으나 그 收奪이 根絶될 수는 없었다. 濱賣行爲도 여전했고, 特定人(巖岩主)의 횡포가 이어졌는가 하면, 潛水器船의 第一種共同漁場 侵犯, 密出稼者를 포섭한 料金採取의 恣行과 不正檢斤이 잇따랐다. 이리하여 濟州·慶北 兩道

13) 水産業協同組合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陽南漁組는 甘浦漁協으로, 大甫漁組는 九龍浦漁協으로 각각 병합되었다.

14) 海女 引率者는 이른바 ‘指導員’이라 일컬었었으며, 해마다 4월이 되면 40명 내외가 제주도에 들어와서 해녀 3~40명씩 慶北 裁定地區로 인솔해 갔었다.

사이에는 미묘하고도 착잡한 말쟁이 꼬리를 물고 되풀이되어 왔다. 드디어 1967년 2월 慶北 裁定地區 3個漁協에서는 제주도해녀들의 入漁價行權 消滅確認 請求訴訟을 大邱地法에 提訴하기에 이르렀고, 1968년 9월 慶北側의 勝訴判決이 나자 濟州側에서는 10월 抗訴를 제기한 바도 있다.

出稼海女の 權益問題를 走馬看山格으로 훑어 보았지만, 水山の 一角에 그쳤을 뿐이니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出稼海女數는 나날이 줄어들어 오늘날에도 出稼는 이어지지 않는 얼마 되지 않은 수효다. 1970년에는 日本 四國地方에도 26명이 나갔다 온 일이 있다.¹⁵⁾

1968년경부터 제주도 水産當局에서는 이른바 ‘海女 안보내기 運動’을 표방하고 있다. 곧 ①潛水器船의 共同漁場 侵犯을 철저히 방지하고, ②生活安定資金의 적절한 放出에 의한 海女生業에 대한 安定策을 확립하며, ③投石事業 등에 의한 漁場의 改良과, ④非食用海藻類의 效用價値를 考究, 이의 채취를 권장함으로써 제주도내에서의 해녀들의 收益을 늘리는 등 대책을 세움으로써 ⑤해녀 안보내기 운동을 벌여 왔다. 그 수효는 줄어들어 가지만 海女の 出稼는 상당기간 이어질 듯 보이며, 出稼가 이어지는 이상 그들의 權益問題는 영원한 숙제로 남겨질 것이다. 漁業集團의 속담에 보면 “열두놈 혼착 먹어서 좁수치지 온다”는 말이 있다. 곧 열두놈 한쪽 먹어야 潛嫂 차지 온다는 말이니 곧 많은 沒廉恥漢에게 듣기고난 나머지만이 해녀들 손에 들어온다는 뜻이다.

예나 이제나 出稼海女の 대부분은 零細農漁村의 딸들이요 주부들인데, 高卒 이상도 드물지만 一字無識한 자도 거의 없으며, 역시 활동력이 왕성한 2,30대가 많다. 해마다 5~6개월 동안 出稼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은 千差萬別이어서 두세해 물질나갔다 와서 집·밭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었고, 어쩌다가 採取物 作況이 불량한 위에 날씨 탓으로 操業日數는 얼마 안되는데다가 引率者를 잘못 만나서 그 收益이 보장되지 않는 해에는 빈몸으로 歸郷하는 수도 있다. 1967년 慶北裁定地區에 현지답사하여 표본조사한 결과 그곳에 出稼한 해녀 1인당 월 평균수입이 약 1만원이었고, 出稼期間을 평균 5개월로 잡으면 한번 出稼에 약 5만원 벌이가 되는 셈이었다. 1985년 8월 소섬(北濟州郡 牛島面)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완아여인(71세)이 16세 때(1931년) 對馬島로 첫 出稼해서 1백량을

15) 모두 北濟州郡 舊左邑 출신의 해녀들이었는데, 李範九 개인과의 계약에 따라 4개월 기한으로 出稼했다.

벌어다가 6백평의 밭을 샀었다는데,¹⁶⁾ 이처럼 한번 出稼로써 家産을 이루는 일이란 가끔 있는 일이었다.

出稼를 얹더라도 제주도해녀의 수입은 家口 生計費의 3~4할은 되므로 出稼에 따른 그들의 소득은 섬경제에 옛부터 크게 이바지해온 셈이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어느 지방에서는 “아들 나민 밭로 콧 차곡, 딸은 나민 도새기 잡앙 잔치훈다”(아들을 낳으면 밭로 콧 차고, 딸은 낳으면 배지를 잡아서 잔치한다)는 이야기마저 전해 온다.

5

이제까지 제주도해녀의 出稼實態를 그 〈海女노래〉를 곁들이면서 살펴 보았다. 여기 인용된 〈海女노래〉는 필자의 《濟州島民謠研究 上》(一潮閣, 1965)에 수록된 자료들이다. 〈表2〉에 제시하는 〈海女노래의 題材〉에서 보듯이 海女出稼를 題材로 한 비율도 높다. 곧 위 책에 수록된 〈海女노래〉 자료는 199편인데, 이 數値가 일정한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83편이 海女出稼를 題材로 하고 있다. 이는 곧 수록된 〈海女노래〉의 41.7%에 이르는 비율인데 海女出稼過程과 海女出稼生活로 大別된다. 〈表2〉에서 보듯이 離鄉出稼, 櫓 짓는 氣魄, 배와 뱃사공, 出稼하는 뱃길, 出稼의 目的 등 그 대부분의 題材가 出稼過程에 쏠리고 있다. 역시 질푸른 海原을 집안 삼고 연거푸 물려 오는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물질나가는 뱃길에서 부딪치는 그 實相 자체가 주요한 소재로 등장함은 자연스런 일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민요는 민간들이 實生活에서 現實的으로 맞닥뜨리는 일을 구체적으로 노래한 것이 大宗을 이룬다.

出稼海女를 題材로 한 〈海女노래〉의 사설은 機能·歌曲·辭說이 固定的 結合을 이룬다. 해녀작업하러 배를 타고 櫓를 저으면서, 〈海女노래〉의 가락으로, 海女出稼와 관련된 사설을 부르기 때문이다. 櫓를 짓는 동작에 합치된 가락으로 물질나가는 내용의 사설을 부름으로써 櫓 짓기를 한결 편하고 즐겁게, 力動的으로 치러 나간다.

〈海女노래〉는 〈맷돌·방아노래〉와 더불어 제주도민요의 雙璧을 이룬다. 그 사설이 워낙 술하고 빼어나다. 이 두가지를 對比하면 〈海女노래〉의 文學性은 〈맷

16) 金榮敦·金範國·徐庚林: “海女調査研究”, 《耽羅文化》제5호, p. 253, 濟州大耽羅文化研究所, 1986.

〈表2〉 海女노래의 題材

題材	題材分類	篇數	比率	要素
①海女 作業出 發	I. 배타 나감	11	5.5	機能·唱曲·辭說이 대체로 固 定的 結合
	II. 해엄처 나감	5	2.5	
	小計	16	8.0	
②海女 作業	I. 潛水作業	8	4.0	"
	II. 海産物採取	12	6.0	
	III. 苦役吐露	9	4.5	
	IV. 莫老·無常	4	2.0	
	V. 作業目的	5	2.5	
	小計	38	19.0	
③海女 出稼過程	I. 離鄉出稼	5	2.5	"
	II. 노짓는 氣魄	29	14.6	
	III. 배와 뱃사공	9	4.5	
	IV. 出稼하는 뱃길	15	7.5	
	V. 出稼의 目的	6	3.0	
	小計	64	32.1	
④ 海女 出稼生活		19	9.6	
⑤愛情	I. 相思	16	8.1	機能·唱曲은 固定的 結合이나 辭說은 流動的
	II. 戀慕	21	10.6	
	小計	37	18.7	
⑥餘情	I. 身世吐露	9	4.5	"
	II. 日常情意	16	8.1	
	小計	25	12.6	
計		199	100%	

資料：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上》

돌·방아노래)에 미칠 수 없다. 〈海女노래〉의 口演與件이 〈맷돌·방아노래〉의 그것에 비하여 安定되지 못하고 가다듬어진 사설을 헤아릴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곧 〈맷돌·방아노래〉는 집안의 아늑한 곳에 머물은 채 한두 사람이 오랫동안

동안 치르는 일과 더불어 불리는 데 비하여, 〈海女노래〉는 과도 치는 바다 위를 달리는 배 위에서 여럿이 櫓 저으며 부르는 散亂한 분위기다.

〈海女노래〉 사설의 字數律은 대체로 4·4調이며 끝맺음이 疑問形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이유 등으로 直說的이요 力動的인 색채가 짙다.

거센 파도가 이는 시퍼런 바다를 물의 받처럼 여기면서 아시아 4개국 연안으로 뻗어나갔던 제주도해녀의 出稼와 그 민요에 대한 조사 연구과제는 참으로 육중하다. 여기에서는 이를 대충 개관했을 뿐인데, 이 과제는 앞으로 숭한 인원과 시일을 투자한 조사활동이 이뤄져야 할 줄 안다. 出稼길과 出稼生活의 實態와 習俗, 이들의 所得과 權益 등 民俗學的, 經濟學的, 法社會學的 側面에서의 實證的이고도 綿密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들은 싱그러운 海洋文學인 特有的의 〈海女노래〉를 지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立體的인 分析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